

1일 충남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김천시청 최종우가 혼신의 스매싱을 꽂아 넣고 있다. 당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제2의 정재성’ 꿈꾸는 샛별 최종우

여름철 종별배드민턴선수권 첫날

이제 갓 고교졸업한 김천시청 미래
복식 전문 불구 단체전 단식서 선전
“대학 대신 실업…경험 빨리 쌓을 것”

실업 배드민턴의 강호 김천시청은 1일 개막한 제59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가대표팀 선수 3명(손완호, 고성현, 신백철)의 공백이 뼈아팠다.

그러나 단체전에서 ‘미래’를 보기도 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으로 직행한 최종우(19)가 그 주인공이다. 최종우는 1경기 단식과 3경기 복식에 모두 출전했다. 권성덕 김천시청 감독은 “단식 연습도 못 했던 선수”라고 최종우를 소개했다.

최종우는 김천생명과학고 재학 시절 세계주니어배드민턴대회에서 3차례나 우승을 한 선수다. 남자복식 2회, 혼합복식 1회 우승을 거둔 ‘복식 전문 선수’다. 그러나 훈련 한 번 없이 출전한 1경기 단식에서 분전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청 한기훈에게 1-2(10-21 21-16 21-23)로 패배했지만, 2세트를 따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더니 3세트에는 15-20으로 밀린 상황에서 내리 5점을 따내 듀스를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최종우는 “고등학교 때도 연습 없이 단식에 나가고 그랬다. 준비를 잘 못해서 내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복식 위주로 하다 보니 스트로크가 약하고 정확성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단식과 복식은 풋워크부터 다르다. 복식은 파트너가 있는 만큼, 단식과 달리 짧은 거리를 빨리 뛰어야 한다.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우는 씩씩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그는 “단식에 나갈 때 부담이 되거나 긴장이 되는 건 없다. 오히려 복식보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열린 봄철종별리그전에서 실업 데뷔전을 가질 때만 해도 긴장을 많이 했지만 두 번째 대회는 달랐다. 그는 “첫 대회 땐 긴장을 많이 했다. 처음엔 실업선수들과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뛰다보니 적응이 됐다”며 웃었다.

또래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실업을 선택했다. 포기한 것도 있지만, 실업만의 장점도 있다. 그는 “선수 관리나 훈련, 트레이닝 같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대학보다 경험을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최종우의 롤모델은 2012런던올림픽에서 이용대와 짝을 지어 남자 복식 동메달을 차지했던 정재성 삼성전기 플레잉코치다. 정재성은 복식에서 손목 힘을 바탕으로 후위 공격에 강점이 있다. 그 역시 웨이트트레이닝을 많이 하면서 순발력과 힘을 기르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덕 감독은 “나이가 어리지만 주니어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보다 나은 운영능력을 보이고 있다. 근력과 순발력을 더 키우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여자부 화순군청·남자부 수원시청 8강 진출

국내 최대 셔틀콕 축제인 제59회 전국 여름철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1일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체육관에서 개막됐다.

2016리우올림픽에서 더 좋은 시드를 받기 위해 국가대표 주축들이 국제대회 출전으로 불참했지만 그런 만큼 대회 첫 날부터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대회 첫날 여자일반부 단체전 토너먼트 16강 첫 경기에서는 화순군청 유해원-고아라의 활약이 빛났다. 같은 소속팀으로 국제무대에서 세계 정상급 활약을 이어온 이들은 여자복식 세계랭킹 13위에 올랐지만 올림픽 출전 제한(국가당 2개팀 이하)으로 리우행 티켓을 놓친 선수들이다. 화순군청은 시흥시청과 경기에서 유해원-고아라가 4복식에서 강찬희-이지혜를 2-0으로 이겨 최종 스코어 3-1로 경기를 끝내고 8강에 진출했다. 유해원은 경기 중반 다리 근육통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노련한 수비로 끝까지 승리를 지켰다.

남자일반부 단체전 16강 토너먼트에서는 수원시청이 올림픽 혼합복식에 출전하는 고성현과 남자단식 금메달에 도전하는 손완호가 빠진 전통의 강호 김천시청을 3-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한기훈과 박완호의 활약이 컸다.

지난해 남자단체전 우승팀 삼성전기는 남자복식 국가대표 이용대, 김사랑, 김기정이 올림픽 출전으로 뛰지 못했지만 고양시청에 3-1로 승리해 8강에 올랐다. 요넥스는 던롭을 3-0으로 크게 이기고 8강전에 합류했다.

당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제 59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1일 경기결과

- 남자 일반부 단체전 16강=요넥스 3-0 던롭, 수원시청 3-0 김천시청, 삼성전기 3-1 고양시청
- 여자 일반부 단체전 16강=화순군청 3-1 시흥시청
- 남자 대학부 단체전 16강=한체대 3-1 백석대, 세한대 3-2 대구가톨릭대, 원광대 3-1 한림대, 경남과기대 3-0 동양대, 경희대 3-1 동신대, 동의대 3-0 백석문화대

박성현, 1년전 놓친 롯데칸타타 우승컵 품을까?

이정민·장수연 등 경쟁자들 막강
“짧은 클럽으로 공략”…설욕 자신

“나에겐 의미가 큰 대회다. 아쉽게 생애 첫 우승을 놓친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3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스카이·오션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칸타타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은 박성현(23·넵스·사진)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데뷔 2년 차의 무명이던 박성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마지막 18번홀에서 약 1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성현은 이 퍼트를 놓쳤다. 결국 이정민(24·BC카드)과 연장까지 갔고,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아픔으로 남을 것 같았던 역전패는 박성현에게 좋은 약이 됐다. 2주일 뒤 열린 한국여자오픈에서 이정민을 상대로 다시 우승 경쟁을 펼친 박성현은 접전 끝에 우승트로피를 차지하며 ‘박성현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박성현은 누구도 넘보기 힘든 강자가 됐다. 올해 벌써 4승을 챙기면서 KLPGA 투어를 완전히 장악했다. 1년 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무명의 박성현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가 돼 돌아왔다. 각오 또한 비장하다. 박성현은 “생애 첫 우승을 놓친 아쉬움은 있지만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대회다. 그렇기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서 “지금 몸 상태가 좋지는 않다. 그러나 샷 감각이 나쁘지 않아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1년 전 놓친 우승트로피에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박성현의 우승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은 KLPGA 투어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익숙한 코스다. 매년 두 차례(롯데마트 여자오픈·롯데칸타타여자오픈) 대회가 열려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을 정도다. 지금까지 열린 14차례 대회에서 2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김보경(30·요진건설)이 유일하다. 김보경은 2013년 롯데칸타타여자오픈, 2015년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그만큼 절대 강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코스 특성상 장타와 정교함을 두루 갖춰야 한다. 바람이 잠잠할 때는 멀리 때려 놓고 홀을 직접 공략하는 승부가 잘 통한다. 그러나 강풍이 몰아칠 경우 장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라산 자락에서 시작되는 ‘마운틴 브레이크’는 언제든지 선수들을 골탕 먹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코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박성현은 “코스가 익숙하고 전장이 길지 않다. (드라이브샷이 잘 맞으면) 짧은 클럽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홀이 많아 나에게 유리하다”고 자신을 보였다.

1~2라운드부터 불꽃 튀는 우승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성현, 이정민 그리고 올해 2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장수연(22·롯데)이 함께 경기를 펼친다. 미리 보는 챔피언조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권총 황제’ 진종오(왼쪽)와 여자권총의 간판 김장미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두 선수는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도 금빛 총성을 울렸다. 스포츠동아DB

뇌 과학 접목한 고도의 심리훈련 금빛총성, 0.1%의 흔들림도 없다

스포츠동아·KISS 공동기획
리우를 향해 뛴다! 31 사격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역대 대회들과 다르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각 종목 경기단체는 리우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안정을 위해 위험과 질병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주요 기관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선 유도, 양궁, 펜싱, 태권도뿐 아니라 사격도 한국의 가장 강력한 메달 획득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림픽에서 사격은 육상과 수영 다음으로 많은 메달이 걸린 종목이며, 한국사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주요 국제종합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선사한 효자종목이다.

올림픽 사격은 공기총과 화약총, 소총과 권총으로 나뉘는 종목의 특성상 고도의 심리조절능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사격은 빛, 소리, 바람(화약총) 등 환경의 변화와 불안, 집중력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과가 판이하게 바뀌는 매우 예민한 스포츠다. 2012년부터 결선 서바이벌 방식(1명씩 탈락)이 도입되면서 보는 이의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사격선수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 속에 경기를 치르고 있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사격은 9개 종목에 18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키는데, 그동안 한국사격의 선전에는 국민적 응원과 여러 지원책도 큰 힘이 됐지만 국가대표선수들의 부단한 노력과 강인한 정신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권총 황제’ 진종오(37·kt)와 여자권총의 간판 김장미(24·우리은행)는 리우에서도 2012런던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할 한국사격의 대들보로 손색없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기 도중 위기대처능력이 매우 뛰어난 진종오는 2014년 그라나다 세계선수권대회와 2015년 포트베닝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줄곧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장미도 2014인천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여러 세계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진종오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강점이며, 김장미는 경기 전후 세심한 자기관리와 안정된 심리가 돋보인다.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 50m 소총 3자세와 50m 소총복사의 김종현(31·창원시청), 남자 25m 속사권총의 김준홍(26·KB국민은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현은 착한 성품과 성실한 훈련자세, 경기에서의 인내력을 두루 갖췄다. 사격선수로서 안정적 심리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만큼 리우에선 금메달이 기대되는 후보다. 김준홍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선 남자 25m 속사권총 비공인 세계신기록(38점)을 수립했다. 겸손하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매사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서는 것이 강점이다. 이밖에 곽정혜(30), 김은혜(29·이상 IBK기업은행), 황성은(23·부산시청)도 여자 공기권총과 소총에서 깜짝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사격국가대표선수들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의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해 경기상황에서의 심리 극복 방법, 불안과 긴장에 대응하는 심리적 안정화 방안 등의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사격 분야에 적용되는 스포츠과학 지원으로는 뉴로·바이오피드백의 뇌과학을 접목한 심리기술 훈련이 있으며, 격발자세의 안정성 탐색과 총구의 변화 추적 분석을 통해 한층 안정적인 타이밍을 유지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비록 이번 올림픽이 브라질 현지의 질병과 치안불안이라는 위험 속에 치러지지만, 대한민국 스포츠의 영광을 이끌어온 사격국가대표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격국가대표선수들이 지금껏 흘린 하루 1리터의 땀과 노력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스포츠과학실 연구원 박상혁 박사

마제스티 로얄 VQ-V 구매 땐 사은품



. 마루망코리아는 30일까지 마제스티 로얄 VQ-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마제스티 로얄 VQ-V 풀세트를 구매하면 80만원 상당의 마제스티 골프백 또는 60만원 상당의 다이슨 핸디 청소기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드라이버 구매 고객에겐 소가죽 벨트 또는 골프우산, 페어웨이 우드와 아이언 세트 구매 시 골프볼 1더즌 또는 고급 파우치와 벨트 세트를 증정한다.

레슨+라운드 기능 ‘지스윙 멀티’ 출시

스크린골프업체 지스윙은 아카데미(레슨)와 실전 필드 라운드 기능이 결합된 ‘지스윙 멀티’를 출시했다. 아카데미 모드는 개인 트레이닝을 위한 기능으로 혼자서도 본인의 스윙을 점검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습은 물론 거리 및 상황별 그린공략 연습과 템포를 통한 스윙 연습이 가능한 미러 윈도우 기능, 기본 퍼팅 및 지형에 따라 연습할 수 있는 퍼팅게임 등이 가능하다. 지스윙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에서 지스윙 멀티 CF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